

“확실히 좋아졌어요”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만성통증 무료검진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만성통증센터는 지난 6일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보건실에서 선단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IMS(Intramuscular & nerve Stimulation)만성통증

전문과정 무료검진을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 강, 이영진 교수 등 32명의 교수진과 간호사,진행요원으로 이루어진 40여명의 의료팀은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미리 예약을 받은 1백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검진대상은 목,어깨,팔,팔꿈치,어깨,무릎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노장년층의 만성통증 환자,암박골절 후 통증,관절염,수술 후 통증 등을 검진했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관절/척추 만성통증 연구소 소장은 “만성통증은 전체 의학 환자의 15%에 해당하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70%이상이 만성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다”며 “이러한 만성통증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총체적으로 습득하여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강남차병원 통증센터 의료진들이 이번 무료검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검진을 받은 주민들은 “항상 통증이 계속됐던 부위가 말끔히 치료됐다”며 “지속적인 검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매 분기마다 가산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방문해 만성통증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가 위치한 선단동 지역 무료검진은 처음이다. 이날 검진팀의 안 강 교수는 세계 중의 골과학회 이사,대한 IMS학회 부회장,개나나 만성통증 연구소 수석 고문이사,포천중문의과대학교 관절/척추 만성통증 연구소 소장,강남차병원 관절/척추 만성통증센터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건강검진결과 유선 및 방문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6월부터 구체적인 상담에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 자, 건강주의자, 유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생활개선지침서, 질환별 건강문고 등을 제공하고 6월부터 유선 및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건강주의·유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생활개선지침서, 질환별 건강문고 등을 제공하고 6월부터 유선 및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 건강검진결과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 질환 판정 자 26만1천401명 중 검진일 이후 6개월 동안 해당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 16만7천502명으로 비율이 무려 64.1%에 이르고 있으며, 만성질환별 진

료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 자에게는 건강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해당 질환 자에게 제공하고, 종합판정 결과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진결과(음주,흡연,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운동,식생활 개선 관련 지침서를 제공함은 물론 유선·방문 상담을 통하여 정상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종합판정 결과 유 질환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치료를 받도록 상담하고, 판정질환별 건강문고를 제공한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 건강관리팀 : 031)536-4844(직)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등 정



현충일 추념 행사참석
변진수 포천시교육청 교육장은 지난 6일 포천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했다. 8일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경목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지난 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0일 소회의실에서 경목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여름철 사고대비에 만전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지난 7일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및 물놀이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및 장비점검과 사고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경기소리보존회 개소식에 참석
김진동 한국예총포천지부장은 지난 7일 오후3시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축하하고 우리의 소리 보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질서운동 캠페인에 참석
이병업 바르게살기 포천시협의회장은 지난 3일 선단동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4분기 회의 및 기초질서운동 캠페인에 참석, 질서지키기 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영삼주민자율방범대 발대식

무리리, 이곡리, 직동리 2천500여명 치안유지 다짐



이 위치한 이 지역은 방범순찰 거리만도 25km나 된다. 따라서 순찰도 2개조로 나눠 1개조는 직동리에서 출발하고 1개조는 무리리에서 각각 출발해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만나게 된다. 영삼자율방범대 근무수칙에 대해 임 대장은 “봉사자로서 주민을 보호하고 항상 술선수범하며 품위를 지키고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자”라고 밝혔다. 또 근무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준수, 외곽순찰 철저, 긴급사태시 상황보고 철저, 초소내 비품 정위치,음주,도박금지,초소정리정돈 및 주변청소 할 것 등이다. 임 대장은 “동네 이장들이 주축이 되어 발대식을 가졌으나 내년에는 젊은 사람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보다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발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대원들과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백혈병 환자를 도와주세요

15일 송우리 사이판노래방에서 바자회

초등학교 학생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포천시 송ולם 송우리에 위치한 추산초등학교 백혈병 돕기 바자회가 오는 15일 송우리 사이판노래방에서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는 추산초등학교 어머니회

와 예·체능진흥회에서 마련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커피와 녹차, 쥬스등을 판매한다. 1잔 가격은 5천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백혈병으로 사달리고 있는 박현을 학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기로 했다. 정병갑 기자 ipk61@hanmir.com

‘호스피스 가정방문 활동가’ 로사수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 지키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종 직전 환자들의 육체·정신·심리적 통증을 덜어주고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임무입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믿음으로 지

난 87년부터 포천에서 호스피스 가정방문 활동을 펼쳐온 평화의모친의 집 정순빈 원장(사진,수녀,55). 겨우 마흔 줄에 홀로 될 남편 걱정에 딸 아이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유언으로 남긴 주부,치료불가능한 병에 걸려 온갖 밤새를 풀기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까지 호스피스는 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며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 원장은 영국에 총본부를 둔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소속 수녀로서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았다. 정 원장은 인간의 본성을 모성애에 있다고 보고 환자들을 어머니처럼 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통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준다. 말기환자가 불면증에 시달리면 꼭 껴안아주면 고통이 줄어들고 잠이 든다. 특히 환자의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어준다. 상담을 통해 환자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통증서비스를 연결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 추진한다. 포천에서의 활동은 몇몇 사람들을 대

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요를 감당해줄 수 없다고 있다. 다행히 자원봉사자들이 이 활동에 동참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중요하다.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호스피스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정 원장은 몇몇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규모 있는 시설과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원장은 평화의모친의집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따라서 이곳 노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예쁘다. 아름다운 노인분들의 모습에서 정 원장의 노인들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정 원장은 “가난 때문에 죽을 자리,물릴 자리가 없는 사람,환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이혼, 자녀의 탈선,돌볼 사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등을 수없이 보면서 가족과 친자들에게 둘러싸여 편만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을여행을 꿈꾸는 환자 밤에 낙엽을 깔아주는 호스피스의 역할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정 원장의 모습에서 참다운 사랑을 발견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인터뷰

영삼주민자율방범대 임동호대장



“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역 치안 유지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5일 영삼주민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한 임동호(55,사진) 대장의 취임 일성. 고개넘어 3개 마을이라 하여

“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역 치안 유지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2시 소흘농협 이곡직접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초대 방범대장에 임동호 무리리 이장,사무국장에게 윤여형 이곡2리 이장,부대장에게는 류정열 무리리 이장,이용석 이곡1리 이장,원희재 직동2리 이장,박형용 직동3리 이장이 취임했고 창립추진위원장은 박준범 직동2리 이장이 수고했다. 총 대원수는 무리리 18명, 이곡리 20명, 직동리 38명 등 7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금은 각 리에서 50만원씩 7개리에서 350만원을 모아 출발한다. 방범 순찰 범위는 무리 2리에서 무리리리를 거쳐 이곡2리, 이곡1리, 직동3리, 직동1리, 직동2리 등 25km를 순찰하며 소요시간은 90분이다. 영삼주민자율방범대 초대 임동호 대장은 “초대는 이장들이 중심이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동네의 젊은 청년들 위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보다 활기차게 운영해 나갈것으로 기대하며 율한해동안 많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포천시 도시민 환경체험 행사 가져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체험 계기



포천에도 류마티스 클리닉 센터 오곤



스클리닉이 포천의료원에 개원해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나섰다. 진료대상은 관절염 환자이며 진

료시간은 월,수,금요일 오후1시30분부터이며 상담 및 문의는 031)539-9190으로 하면 된다. 지난 2일부터 검진을 시작한 류마티스 클리닉은 김동열 과장(사진)이 진료에 나선다. 김 과장은 의학박사로 한양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한양대학병원 류마티스병원 전임의,Queen Mary Hospital,Hong Kong 방문의사등으로 활동해오다 이번에 포천의료원 류마티스 클리닉을 개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시민단체 거리 청소 14주째 계속

실천의지 다지고 시민운동 효과 거양



포천사람시민연대(공동대표 윤민구 김성진)는 지난 2월2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동안 포천시내 청소

는 강병원~신음파출소 구간까지 청소를 했으며 고모리 저수지 주변 청소에도 나섰다. 고모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고모리 저수지 청소는 치위도 치위도 할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 투성이었고 100리터

60장의 쓰레기봉투를 채우고도 치위야할 쓰레기가 남아 있을 정도였다. 포천사람시민연대 김우석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무관심하던 시민들이 음료수도 사다 주고 상가 앞을 청소할때면 상가주인들도 함께 청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포천사람시민연대는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며 6월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포천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바로 알기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에는 대전대의 후원을 받아 시민강좌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시장 관공비가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포천시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시 노원구의 새마을부녀회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관인면 탄동리 오리농법 재배단지

이날 행사는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원 100명과 서울 덕암초등학교 학생 100명, 포천시와 시의회 관계자, 농업관련단체장, 관인농협임직원 및 친환경 작목반 등 모두 300여명이 참가했다.

도시민 참가자들은 오리농법재배단지에 오리를, 우렁이 농법재배단지

이들은 또 관인면 소재 포천살연구회 가공센터와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포천시는 행사참가자들에게 오리쌀 등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친환경 오리농법과 한탄강의 청정수를 이용해 생산되는 쌀은 농업인들의 고소득원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 오리농법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농교류의 기반을 다지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천시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된 이번 친환경 체험행사는, 소위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맞물리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ipk61@hanmir.com

김영자 회장 도시사 표창 수상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주부의 날 행사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5명은 지난 1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6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식을 참관하고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이 여성발전유공자로 도시사 표창을 받았으며 조순정, 이경숙 회원이 각각 여

성 기여경진대회 시부문 장려상과 주부의 날 기념 예능대회 인기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는 여성들의 경제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단체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